남구 효사랑 스튜디오 '화려한 부활'

화재 등 역경 딛고 드라마·영화 잇단 유치
나주 주몽 촬영장과 연계 관광객 유치 나서

지난 2005년 화재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광주시 남구 효사랑 스튜디오가 최근 대작 드라마와 영화 등을 잇달아 유치하며 재기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인기몰이에 나선 KBS 특별기획드라마 '바람의 나라'가 남구 양과동 효사랑 스튜디오에서 촬영된다.

남구청과 '바람의 나라' 제작사인 '초록뱀미디어'는 이번주중 효사랑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다음주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진 작가의 동명만화를 드라마화한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 유리왕 시절부터 그의 아들 무휼이 고구려를 강성하게 만드는 과정을 그리게 된다.

'바람의 나라'는 드라마 '해신'의 강일수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주몽의 손자 무휼 역에 송일국, 유리왕에는 정진영이 출연한다. 또 최정원, 박건형, 오윤아, 이종원 등 초호화 캐스팅은 물론 중국 현지 촬영 등으로 제작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대작이다. 효사랑 스튜디오는 '바람의 나라' 실내 촬영인 궁궐 내부, 유리왕 침실과 집무실 등 36부작 대부분에 노출된다.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스튜디오 내부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또 다른 촬영지인 나주 주몽 촬영장과 협조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구청과 드라마 촬영진은 남구와 관련된 행사의 홍보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V를 통한 광고효과는 물론 드라마 제작진이 광주에 머물면서 사용하는 비용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석, 고은아 주연의 공포영화 '외톨이'(감독 박재식)도 지난 2월께부터 효사랑 스튜디오에서 촬영돼 오는 18일 개봉될 예정이며, 광주 출신의 중국 인민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히스토리(The History)'도 제작되는 등 남구가 광주지역 드라마·영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남구청 평생학습과 김경종(46)씨는 "바람의 나라 외에도 3편의 드라마·영화 유치를 협의 중"이라며 "효사랑 스튜디오가 활성화될수록 문화적 교류는 물론 남구청 행사와도 연계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지하철 DJ센터역에 '인권 테마관' 조성

인권위 내달초 개관

광주지하철에 국내 첫 인권 테마관이 조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는 16일 "광주 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 역(驛)에 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 테마관'을 조성해 오는 10월 초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마관에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예술품이 전시되고, 인권학습공간과 체험공간 등이 마련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된다. 또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단편영화 상영, 인권교육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광주의 대표적 인권 장소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기념 60주년이라는 점과 광주에 '문화와 인권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공간이 없다는 인식 아래 지난 3월부터 테마관 조성을 추진해왔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무상으로 장소를 대여했고, 광주시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

이정강 소장은 " 인권과 평화로 상징되는 광주를 알리기 위해 테마관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품으로 인권도시로서의 광주를 대표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충장축제 열기 고조 '제5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20여일 앞둔 16일 광주시 충장로 거리에 축제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70개 지자체들의 상징깃발과 현수막이 내걸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발전연 개원 1주년
'광주 미래비전…' 세미나

광주발전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2시 공무원교육원 1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의 미래비전과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조강연,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의 미래비전과 발전'을 주제로 한 문석남 대불대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가 '미래산업과 광주의 대응'을, 김하림 조선대 교수가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자유토론은 오재일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정순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장, 김성숙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일태 전남대 경영대학장, 문덕형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병록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주 발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8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분리, 개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여성희망포럼 창립

(사)광주여성희망포럼이 17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광주여성희망포럼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48명의 추진위원들이 참석, 박광태 광주시장과 함께 추진위를 이끌 공동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여성포럼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여성희망포럼은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효율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여성평화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한 광주선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행정안전부 '2008년도 u-City 지원 사업'
광주 '문화 지하철' 등 3개 선정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을 위한 '2008년도 u-City 사업' 지원 대상으로 광주시의 '문화와 안전이 있는 u-광주지하철'과 광주 동구의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순천시의 'u-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u-City' 서비스 표준모델 및 안전관리모델 개발사업에 광주시가 응모한 '문화와 안전이 있는 u-광주지하철' 사업계획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6억원)와 시비(2억5천만원) 등 8억5천만원을 들여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한 '문화지하철'과 u-IT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지하철'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지하철'은 공연장이 있는 금남로역과 상무역에 IP카메라를 설치해 공연 실황을 나머지 20개 역에 생중계, u-공연문화를 조성하고 유실물 안내, 버스 환승 정보, 시민 UCC를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 '안전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영산강 하저터널구간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구축하고 22개 역사 시설물에 무선으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RFID(모바일 무선인식)기술을 적용, 노후화 예측, 교체시기 알림 서비스 등 시설물 예방점검서비스를 갖추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하순부터 세부설계에 들어가 내년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분야에 함께 선정된 광주 동구의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은 노약자,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의 맥박·혈압 등 의료 정보를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때 신속하게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또 순천시의 'u-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은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에 각종 센서를 이용해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USN)와 RFID 기술을 적용해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후식기자 who@